

기대보다 더 기대되는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 2006년 3월 25일



2006년, 서울시향의 화두는 베토벤이다. 올 한 해 동안 정명훈의 진두지휘 아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베토벤 교향곡 아홉 곡 전부를 연주하는 대장정을 펼쳐가고 있다.

올 6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재단법인으로 모습을 바꿔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다. 단원과 스태프를 비롯한 서울시립교향악단 관련자들은 물론이겠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것, 변화하고 싶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변화를 따라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공연을 감상해온 내게, 지난 일 년은 한 달처럼 짧게 느껴졌다. 아마 그들의 공연을 찾아가고 연주를 감상했던 다른 애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교향악단에 정명훈을 상임지휘자 및 예술감독으로 영입하고 지금처럼 일취월장하는 모습의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곡절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를 아끼는 팬의 입장에서, 열악한 국내 교향악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연주회에서 보여주는 그의 카리스마와 관객동원력을 인정하는 세계 주요 교향악단의 러브콜에 신경이 쓰일 만큼 말이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을 뿐이었다. 대학과 구청에서의 무료 음악회처럼 시민을 찾아나서는 적극적 행보 중에서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늘 새로운 레퍼토리를 일사불란한 앙상블과 황홀한 화음으로 선보였으니까, 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위용을 여지없이 과시했으니까.

몸으로 음악을 번역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

사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상상할 수조차 없다. 연주라는 것이 겉으로는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재현하는 행위로 보이긴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그 과정

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말이다. 독주곡을 연주할 때도 그 곡을 해석하는 연주자에 따라 같은 곡의 연주도 다양한 소리의 빛깔을 갖게 되는데, 하물며 현악·관악·타악기 파트로 이뤄진 여든 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조화롭고 일사불란한 연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주회는 시간예술이다. 지휘자에게 맡겨진 시간은 그가 어떻게 곡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길어도 달라진다. 가령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의 베토벤 <합창 교향곡> 연주는 75분이 넘지만, 존 엘리엇 가디너의 연주가 60분에도 못 미치는 것처럼! 게다가 무대라는 3차원 공간에서 지휘봉으로 그려내는 무수한 포물선과 온 몸을 맡기고 추는 춤사위 같은 지휘 동작은 무대예술이라는 생각을 안겨준다. 작곡가의 악보 속에 담겨 있던 음표들이 날아올라 물고기처럼 퍼덕대고 부유하는 느낌이다.

정명훈 역시 자신의 몸으로 음악을 번역하는 지휘자다. 그의 커다란 동작이 함께 호흡하며 열연 중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집중시키고, 관중들이 무대로부터 단 한 순간도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하는 힘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진지하고 역동적인 모습 때문에 가끔 내가 속한 동호회 일행들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때는 합창석에 앉기도 한다.

그는 무대에 올라와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나면 곧바로 지휘봉을 드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연주가 진행되는 내내 그의 표정은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심각해지기도 하고 나긋나긋해질 때도 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서 땀방울이 푹푹 떨어지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음악에 응축된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지휘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무대 위에서 두 시간 가량의 연주가 끝나고 나면 몸무게가 2kg가량 빠진다고 하니, 지휘에 어느 정도로 강력한 몰입과 에너지 소모가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답게, 총주 중 어느 시점에서 오보에가 등장하고, 팀파니가 울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솔로 연주자를 향해 지휘봉으로 시작점을 꼭 집어준다. 그 부분이 부드럽게 흐를 때는 솔로 연주자와 지그시 눈빛을 교환하며 슬쩍 미소를 짓기도 하고, 격렬한 타격이 필요할 때는 두 발꿈치를 들었다. 몸의 무게를 실어 지휘대 위에서 뛰기도 한다. 연주 중인 곡을 제대로 모르는 감상자라 하더라도 그의 지휘를 바라보고 있다면 곡의 전개를 눈치 채게 되는 것도 이런 매력 때문이다.

변화를 위한

대장정의 키워드 '베토벤'

2006년, 서울시향의 화두는 베토벤이다. 올 한 해 동안 정명훈의 진두지휘 아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베토벤 교향곡 아홉 곡 전부를 연주하는 대장정을 펼쳐가고 있다. 흔히 클래식 음악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베토벤의 교향곡들을 순서대로 연주하는 프로젝트의 기획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의 팬답게 꼼꼼히 읽어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베토벤 음악은 클래식 음악의 모든 것이자 클래식 음악이 토대이기 때문이라든가. 베토벤 교향곡을 하나하나 연주해 나가면서 단원들에게

도 청중들에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가져가고 싶어하다.

서울시향이 전문경영인 출신인 이팔성 대표를 선임했을 때 내건 두 가지 목표를 떠올리면 '어쨌든 베토벤의 교향곡으로 시작했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 NHK 교향악단과 같은 아시아 최고의 교향악단, 나아가 세계 일류 교향악단으로 도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클래식 마니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베토벤으로 시작된 서울시향의 대장정은 대단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클래식에 입문하려고 노력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베토벤의 교향곡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콘서트를 찾을 수 있으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변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세종문화에서 시작된 대장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월 20일과 7월 28일 공연으로 갈수록 늘어서 매진 사태를 빚고 앙코르 공연을 하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포만감 있는 연주,

아쉬운 세종문화회관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의 첫날인 1월 13일, 나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허둥대며 올라온 끝에 세종문화회관의 객석에 앉을 수 있었다. 3층 꼭대기에 있는 자리라,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농담처럼 무대와의 거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갑갑한 것이 흠이었다. 음악을 구석구석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커다란 홀의 한계를 곱씹는 아쉬움을 느꼈다고나 할까.

하지만 베토벤이 '베토벤'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에 따라 1번에서 2번으로, 그리고 <영웅교향곡>이라 이름 붙여진 3번 교향곡으로 넘어가면서 클래식 음악 연주회장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대한 불평은 천천히 수그러들었다. 평소에 잘 듣지 않던 1번의 2악장이 중용적인 템포에 의해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상시키듯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빠져들어 갔다.

베토벤이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작성한 1801년과 1802년 사이에 작곡된 교향곡 2번, 1악장의 서주에서부터 정감 어린 패시지를 전달하는 연주가 가끔은 각 파트가 명확하게 포착되지 못하고 뒤섞여 두루뭉실하게 들려오는 바람에, 투명한 사운드를 원하는 내게 또 다른 아쉬움으로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머피와 셸리가 단적인 것처럼 멀리서 들어서 그런지 금관 악기들의 '뽁'소리들이 거칠게 들리지 않아 아쉬움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3번 <영웅교향곡>이다. 무려 50분 정도의 연주 시간이니 연주자는 물론 청중의 입장에서도 4악장까지 듣고 나면 혼곤함을 느끼게 되는 장대한 곡이다. 이 날의 <영웅교향곡>은 정격 편성의 연주로 3대의 혼이 사용되었는데, 예의 깊고 낮은 혼의 소리가 깔리면서 둥근 소리로 일관된 것은 짹짹 뻗어주기를 바라던 트럼펫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점에 비하면 매우 훌륭했다. 특히 4악장의 느린 부분에서 혼이 주제를 연주하는 가운데 트럼펫이 액센트를 넣어주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함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국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늘 지적되어 왔던 금관 악기의 약점을 상당히 많이 극복한 발전된 기량을 보

여준 탁월한 연주였다.

4악장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피날레를 들으면서 이제부터 베토벤의 축제, 아니 정명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음악으로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클래식 전용 회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지인 중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공연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있을 정도니. 만일 이 날의 공연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있었다라면, 혹은 또 다른 전용 공간에서 있었다라면, 한결 단련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각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아티클레이션의 미세한 소리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 마음을 갖고 장거리 여행과 음악의 만취 후에 오는 나른함 속에서 집으로 향했다.

롤랑의 찬사를 확인시켜준

음표들의 질주

그리고 일주일 후,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공연장과 음향 시설 미흡에서 비롯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다. 표를 구하지 못해 홀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객석에 앉는 호뭇함이라니...

잠시 후 베토벤 연서 속의 여인, 즉 '불멸의 연인'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인 요제피네 브룬스빅과 사랑을 나누던 1806년 가을에 작곡된 교향곡 4번이 유유히고도 느릿하게 시작됐다. 사랑에 빠진 베토벤의 마음을 반영하듯 어느 교향곡에 비할 바 없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곡이지만, 애석하게도 <영웅>과 <운명> 사이에 끼어 제대

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곡이기도 하다. 로맹 롤랑이 이 곡을 두고 ‘베토벤의 전 생애에 있어서 가장 평온한 나날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한 송이의 꽃’이라고 찬미했다던가? 이 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충주에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좀 건조하게 들려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낭만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3악장에서 스케르초로 몰아치기 시작된 음표들의 행진은 4악장의 거침없는 환희의 피날레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롤랑의 찬사가 괜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줬다.

인터미션 뒤로 이어진 〈운명〉이 연주될 때는 관객과 지휘자, 연주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에 몰입하는 말 그대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운명의 도래를 알리는 그 유명한 주제부가 터져 나올 때 심장은 대책 없이 쿵쾅거렸고, 빠른 템포의 해석에 따라 장렬하게 타악기가 몰아치는 1악장이 끝날 때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서정적 선율로 바뀐 분위기 속에서 플루트와 바순, 클라리넷이 대화하는 부분은 3악장에서 불어닥칠 운명의 폭풍을 모르는 듯 순진무구했다. 그러다 전율로 머리카락이 빼죽하게 솟는 느낌, 모공이 송송 열리는 느낌을 주는 날카로운 현들의 일사불란한 연주는 3악장의 스케르초 템포를 이끌어 나가면서 마지막 피날레 악장에서 청중을 운명의 벼랑 끝으로 몰아갈 기세로 귀기 느껴지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열정적인 우리나라 팬들의 취향에 맞게 꽤 드라마틱한 곡 해석의 〈운명 교향곡〉이 끝났다. 터져 나오는 청중들의 박수와 연호의 보답으로 〈윌리엄 텔〉 서곡을 지휘하려는 순간이었다. 악장이 벌떡 일어나 “해피 버스데이, 마에스트로”라고 외치자, 단원들은 ‘생일 축하곡’을 즉석에서 연주해주었다. 폭풍 속 벼랑으로 몰렸던 정신이 아

찢해진 청중들의 정신을 번쩍 깨어나게 해준 곡, 〈해피 버스데이 데이 투 유〉를 들으면서 좋은 공연을 통한 시민들과의 만남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정명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우리 곁에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다는 훈훈함을 느끼게 되었다.

전원교향곡 2악장 속에

녹아든 여름밤

‘베토벤 사이클Ⅱ’와 ‘사이클Ⅲ’사이의 공백은 너무 길었다. 윤달 덕분에 더 지루하고 더 후텁지근한 장마 탓일지도 모르겠다. 그 지루한 날씨 사이에 놓인 오아시스 같은 공연을 기대하며 기다린 7월 28일, 교향곡 6번과 7번이 연주하던 그날 오후, 짙은 먹구름이 갈라지고 하늘이 파란 속살을 잠깐 드러내던 풍경이 기억난다.

〈전원 교향곡〉은 산책을 좋아했던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할 당시 거주했던 하이리겐슈타트의 여름 숲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회화적인 곡은 아니다. 사실 이 곡을 쓰고 있을 즈음 그는 점점 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잃어가고 있어서 대자연이 커다란 안식처가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교향곡〉을 듣고 있으면, 관목과 수풀 사이를 가로지르며 나무와 목초들 발 아래로 유유히 흐르고 있을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녹음 가득한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노래 부르는 새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이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중에서 가장 연상적인 부분이 바로 2악장의 새소리 부분이었다. 피꼬리의 플루트, 메추리의 오보에, 빠꾸기의 클라리넷이 서로 주고받은 청아한 소리는 잠시 장마로 눅눅해진 마음을 포송포송하게 만들어주는 듯싶었다. 그리고 4악장, 폭풍우

를 연상시키는 충주를 지휘하던 정명훈의 모습은 이제 곧 이어질 디오니소스의 향연을 예고해주듯 격렬했다.

7번 교향곡을 두고 바그너는 ‘무도의 성화’라고 했는데 서울시향의 연주는 조금 맥이 빠졌다. 습한 날씨 탓일지 모르지만, 금관 악기들이 짹짹 소리를 질러주지 못해 어딘지 슬기운이 부족한 잔치 같은 아쉬움이 남았다. 일반적으로 협연을 하는 현악기와 달리 금관악기는 본래 성량도 크거니와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 소위 ‘뺨사리’가 날까 연주자들도 두려워 한다는 트럼펫 부수석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으니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늘 엄숙한 베토벤 교향곡들에서 들을 수 없는 이 곡만의 유희적 즐거움을 흠뻑 맛볼 수 없어 내 몸에 에너지가 남아도는 느낌이었다. 물론 2악장의 아름다움은 여름밤의 후텁지근한 기운에 섞여 달달한 여운을 남겼지만.

대장정의 끝에서

브람스를 기다리며

이제 딱 두 개의 교향곡 연주가 남아 있다. 여름에 만났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이 얼마나 원숙해졌을지 기대하는 즐거움으로 나는 가을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8·15 광복 기념 음악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세계 어느 대도시에 손색없는 ‘고품격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음악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적극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많이 개발되었고 그 질도 괄목한 만큼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격인 전용예술회관의 건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제 선에 접어든 정명훈은 남을 위해 베푸는 시간을 살고 싶다고 했다. 늘 거장, 마에스트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이지만 자신을 낮추고 음악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베푸는 방법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런 멋진 음악인들과 함께 하는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서울 사람들은 행복하다. 지난해까지 약진을 하던 부천시립교향악단과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전처럼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

내년에 브람스 사이클을 계획한 서울시향은 문화의 혜택을 지방으로도 전하려 한다. 올 한 해 약 100회의 공연일정으로 바쁘게 지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내년은 더욱 바빠질 것이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과 괄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세계적 수준의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단 서울뿐 아니라 한국사람 모두가 그들이 나눠주는 문화 서비스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겠다. 매달 이어지는 만 원의 행복(C석 가격)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글쓴이 | 김영욱

그림책과 동화책에 관심이 많으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연을 들으며 다니는 것이 생활의 즐거움이다. 현재 프리랜서 번역자 겸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다.